

10년의 발자국 따라

드넓은 초원과 울창한 숲, 푸른 바다와 황금빛 사막,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산까지. 놀랍고 다채로운 것들로 이뤄진 아시아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우리 모두의 집, 아시아' 상설전

ACC 어린이문화원 '새단장'

- 상설전 '우리 모두의 집, 아시아'
- 팔찌로 미션 채우는 체험활동
- 특별전 '판타지 인벤토리'
- 기억 모아 미래 구하는 9개 퀘스트



특별전 '판타지 인벤토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올해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자연과 생활' 영역의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신규 상설전시를 선보인다.

'우리 모두의 집, 아시아'를 주제로 꾸며진 이번 상설전은 미션을 하나씩 완수해가는 게임형 체험으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시작과 함께 팔찌를 지급받게 된다. 각 코너에서 활동을 수행한 뒤 팔찌를 인식하면 해당 미션에 맞는 스티커가 차곡차곡 채워지는 방식이다.

전시는 바다·갯벌, 습지·호수, 숲·사막,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과 사람들의 삶을 소개한다.

▲뜨거운 모래사장에 있는 바다거북 알을 안전한 동지로 옮겨 보호하는 항해 게임을 비롯해 ▲멸종 위기 동물 AR 마스크를 쓰고 화면 속 '나'의 모습을 체험하는 콘텐츠 ▲정해진 시간 안에 말 모형을 타고 초원을 달려보는 활동 ▲히말라야 산을 오르듯 클라이밍을 체험해보는 코너 등이 마련돼 있다.

아이들이 직접 뛰고, 손으로 조작하고, 몸을

움직이며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대부분으로,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체험 요소가 전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처음에는 다소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요즘 가족 관람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아이들도, 부모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전시에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체험을 모두 마친 뒤에는 팔찌에 모은 스티커를 바탕으로 '나만의 여행 일기'를 만들고, 직접 인쇄해볼 수 있어 전시 경험을 기억으로 남길 수 있다.

한편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는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 '판타지 인벤토리'가 진행 중이다. 내년 3월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 역시 게임처럼 구성된 체험형 구조가 특징이다.

입장 전 관람객은 큐알코드 형태의 출입증을 배부받고, 전시장 곳곳에서 제시되는 총 9개의 퀘스트를 수행하며 '기억 아이템'을 기록해 나간다.

전시의 취지는 ACC 지난 10년의 기억을 모

아미래를 구한다는 세계관으로 설정됐다.

서로의 물건을 물물교환하며 토큰을 찾아 보상을 업그레이드하는가 하면, 자신이 가진 기억을 적은 이파리 5장을 붙여 '기억의 초원'을 완성해볼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 10년간의 공연 콘텐츠와 미생물·그리스 신화 요소를 결합해 미래 단서를 탐색하는 고난도 콘텐츠 등도 포함돼 있다.

전시장에는 김철아, 천영록, 표인부, 루카스 실라버스, 장진프로젝트, 황문정, 소보람, 이연숙 등 총 8명의 작가·팀이 참여해 각각의 퀘스트를 예술적으로 해석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하면 '미래 기억 대장간'에서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한 '행운의 참(charm)' 팔찌나 열쇠고리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또 1천번째, 2천번째와 같은 특별 관람번호 관람객에는 '미래 기억의 링'을 증정한다.

어린이체험관 입장료와 특별전 '판타지 인벤토리' 관람료는 각각 14세 미만 5천원, 14세 이상 3천원이며, 두 전시를 통합 관람하면 할인 받을 수 있다.

/최명진기자

한해 끝자락서 만나는 따스한 클래식 선율

시향 정기연주회, 12일 전남대 민주마루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협연

러시아 음악의 두 거장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와 알렉산드르 스크랴빈의 작품이 추운 계절 따스한 선율로 희망을 전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401회 정기연주회 'Winter Rhapsody'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지휘자 정한결이 이끄는 이번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협연자로 나서 라흐마니노프의 대표작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연주한다.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겸비한 라쉬코프스키는 이 곡의 서정적이면서도 장대한 드라마를 생생하게 표현할 예정이다.

협연자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사진)는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 2위,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이스라엘 루빈스타인 피아노 콩쿠르 3위, 일본 하마마츠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를 석권한 러시아 피아니스트다. 현재 성신여대 음악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

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연주되는 스크랴빈 교향곡 제2번은 장대한 5악장 구조 속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승화를 그린 걸작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긴장에서 해방으로 나아가는 음악의 흐름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한다. 마지막 악장의 화려하고도 강렬한 코랄풍 선율은 관객에게 박진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다.

이날 광주시향을 이끄는 정한

결은 현재 인천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로 활동하며 미래를 이끌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필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도이치 방송교향악단, 필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국립심포니, KBS교향악단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 공연을 지휘했다.

/최명진기자



사북항쟁의 기억, 스크린으로

'1980 사북' GV...오늘 광주독립영화관

5·18민주화운동 한 달 전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벌어진 노동자 집단항거 '사북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과 만난다.

광주독립영화관은 10일 오후 4시 다큐멘터리 '1980 사북'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한다.

영화 '1980 사북'은 1980년 4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 어용노조에 분노한 광부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서며 마을 전체가 격렬한 대치 상황으로 변진 사북항쟁을 다룬다. 당시 광부들은 사북을 장악하고 바리케이드를 구축했으며, '경찰이 사람을 죽였다'는 외침이 퍼지

면서 경찰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투입되며 사건은 국가폭력의 또 다른 모습으로 기록됐다.

45년이 지난 지금, 생존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서서 각기 다른 기억을 증언한다. 서로를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하는 복잡한 회고 속에서 영화는 사북항쟁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고든다.

5·18과 시기적으로 맞닿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상영은 지역 사회에 또 다른 기억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GV 현장에는 박봉남 감독이 참석해 작품의 제작 배경과 취지를 나누며, 진행은 치유예술가 주홍 작가가 맡는다.

/최명진기자

제7회 '양석승 박장대소(Show)'

오늘 대인동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한국 감성 충전&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은 10일 오후 2시 대인동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3층 음악실에서 제7회 '양석승 박장대소(Show)' 행사를 개최한다.

양 소장은 고전·현대·글로벌 유머 등으로 웃음을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초대 공연에서는 가수 안미령이 자신의 타이틀 곡인 '내 맘에 쏙', '그 벤치에서', '재회', '망설이지 마' 등 공연을 펼친다. 가수 박경옥은 '달과 함께 별과 함께',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을, 가수 이명희는 '뽕뽕', '진또배기'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행사는 출연진 모두가 함께 부르는 '목포의 눈물' 합창으로 마무리된다. /최명진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김대중·한강 기획전

노벨상 2인 발자취 조명...내년 2월까지

광주시 역사민속박물관은 '빛의 혁명, 민주주의 공간'을 맞아 내년 2월1일까지 기획전 '지역의 윤리, 평화의 언어'를 연다.

이번 전시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과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

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광주와 깊이 연결된 김대중 대통령의 삶, 광주를 문학의 뿌리로 삼아온 한강의 작업, 지역 사진작가들의 5·18사적지 기록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정치·역사·문학·사진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형태로 구성돼 서로 다른 시선과 작업

의 결과물이 '광주가 간직한 기억'을 오늘의 가치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

1부 '행동'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실천과 광주와의 연대감을 연설문, 육중 서신, 기록물 등을 통해 소개하고, 2부 '응시'는 '목요사진' 작가들이 촬영한 5·18사적지를 전시한다. 절제된 시선으로 기록된 공간 이미지는 시민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해석할 것을 요청한다. 3부 '목소리'는 한강 작가의 문학세계와 한국 현대사가 남긴 상흔을 조명한다. /변은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